‘대학생 전법’ ‘순례 대중화’…전법원력 결집

2023 포교·신행 결산

한국불교 미래 동량 육성 나서
역대급 규모 전법기금 마련도
순례길 조성…전법교화 주력
‘부처님 법 전하자’ 기치 올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코로나19 완화 이후 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포교 · 신행 활동에도 훈풍이 분 한해였다. 올해 포교 · 신행의 키워드는 ‘청년 포교’ 와 ‘순례 대중화’ 진력이다.

대학생 전법 활성화

2023년은 3년간의 코로나19 기간 심각한 타격을 입은 청년포교 활성화에 주력한 한해다.

‘1사찰-1대학’ 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 사찰과 대학생들이 있는 학교의 연결고리를 잇고 상월결사와 전법단, 교수불자연합회, 포교원 등이 함께 청년포교에 나서는 원년이 됐다. 심각한 침체에 있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수행과 신행문화의 원력을 대학생 전법에 집중, 한국불교의 미래 동량을 육성하기로 한 것. 대학생 불자는 우리 사회 희망이자 어린이 청소년을 이끌어갈 미래의 길잡이로서 부처님 법을 전해 받는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부처님 법을 전할 훌륭한 전법 행자이기 때문이다.

대학생 전법은 지난 7월, 상월결사가 대학생전법위원회를 출범하고 교구 · 직능별 전법위원들을 위촉하면서 인력 인프라가 구축됐다. 대학생이라는 특정 계층포교를 위해 전국적으로 사부대중이 결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대학생 포교에 사활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대학생전법위원회는 대학마다 불자 모임을 만들고 학생을 지원해 대불련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올해 불교계가 대학생 전법 활성화에 주력한 가운데, 오랜 공백기를 갖던 불교 동아리가 재창립면서 결과물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11월 봉행된 군산대 불교학생회 창단법회 모습.

11월에는 ‘대학생 전법기금 마련을 위한 사부대중 전법대회’ 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불교동아리 설립을 위해 재정 마련에 나섰다. 대학생 전법 기금은 10년 안에 이뤄진 대학생 전법의 성패에 따라 한국불교의 명운이 결정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전법대회에서는 종정 스님부터 일반 신도까지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원력으로 전법기금 기부에 동참했고 151억 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전법기금이 모연됐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현대 대학생들의 니즈에 맞는 전법을 펼칠일만 남았다. 일회성이 아닌 항구적인 전법원력이 기대되는 2024년이다.

신행문화로 ‘순례’ 대중화 박차

조계종 포교원은 상월결사 순례에 발맞춰 포교연구실을 주축으로 순례길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2022년 허응당 보우의 길, 제주 관음 순례길, 경주 천년미소의 길 등을 개발했고 포교사를 비롯한 청년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순례의 장을 연 바 있다.

올해 초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기해 종단 차원의 순례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순례 프로그램 개발과 전법교화의 원력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강원, 충정권, 호남권에 걸친 8개 순례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협의를 통한 33관음성지 사찰 순례길을 만들었다. 포교원은 순례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 국내 순례길을 조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순례 네트워크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는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는 전법의 기치를 드높인 해이기도 했다. 포교원은 올해를 포교역량 전문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전국 교구 본말사와 포교 · 신도단체를 통해 전법활동 동참을 독려하며 부처님 법을 곳곳에 전하고 한국불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전국민 스마트폰 활용시대를 맞아 모바일 신도증이 개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올해 초 공개된 모바일 신도증은 신도들의 종단 소속감 증대와 신도증 소지의 간편함을 위해 조계종 포교원이 개발한 것으로, 기본적인 신도정보는 물론 교무금 납부 여부 및 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는 기능이 탑재됐다. 모바일 신도증 홍보를 위해 농구인이자 방송인인 허재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출가, ‘단절’ 아닌 ‘세상과 함께하는’ 삶”

교육원, 출가 안내서 2종 발간
은퇴자 등 계층별 맞춤 법문집
범해 스님 “출가 확대 · 전법 최선”

“출가하면 속세와 인연을 끊어야 하나요?” “스님들은 절에서 참선만 하는 거 아닌가요?”

스님을 떠올리면 굳어진 이미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 스님들의 삶은 생각 이상으로 다채롭다. 이같이 출가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고 스님들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낸 출가 안내서가 발간돼 주목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범해)은 출가 교재 2종을 발간했다. ‘슬기로운 출가생활’ 과 ‘불교는 좋지만 출가는 겁나는 너에게’ 이다. 이번 책은 출가 절벽시대를 맞아 출가자 확대에 기여하고, 출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스님들의 꾸밈없는 출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출가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 책 ‘슬기로운 출가생활’ 은 각 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0명 스님들의 출가 이야기다. 서울 홍대 거리에 글로벌 수행 놀이터 ‘JustBe 홍대선원’ 을 운영하는 준한 스님, 사찰 소개 영상으로 누적 조회수 440만을 돌파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무여 스님, 사찰 음식으로 지구를 살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성화 스님, 비구니 군법사 균재 스님, 사회복지사 혜능 스님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는 스님들의 삶과 수행을 들여다볼 수 있다. 특히 QR코드를 이용해 생생한 인터뷰 영상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이 최근 발간된 출가 교재 2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책 ‘불교는 좋지만 출가는 겁나는 너에게’ 는 청소년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맞춤 법문 자료집이다. 1부에서는 일반인, 청소년, 청년, 은퇴자 등 각 세대별 맞춤 법문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를 기록한 ‘불소행찬’ 을 비롯해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경전, 선어록 등을 바탕으로 출가 정신을 되새겨본다. 3부에서는 소년출가, 청년출가, 일반출가, 은퇴출가 제도로 출가한 스님들의 사례를 들려준다. 꿈을 이루기 위해 16세에 출가한 스님, 자매가 같은 날 출가한 스님, 교장 정년퇴임 다음날 출가한 스님 등 특별한 출가 이야기가 소개돼 눈길을 끈다.

12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출판 기자 간담회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출가 이후 더 크게 꿈을 이뤄가고 있는 다양한 분야 스님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영상과 에세이로 만날 수 있다”며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마음, 바른 행동으로 현명한 길을 걸어간다면 행복한 삶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책을 통해 출가에 대한 스스로 삶의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교육원도 책 발간의 인연으로 축가자 확대와 전법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원은 두 권의 책을 템플스테이 사찰이나 군법당, 대학교 법당 등에 배치에 출가 상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찬불가 율동영상 시리즈 ‘108배’ ‘길’ 공개

화계사 어린이법회서 참여
‘키즈붓다’ 등서 시청 가능



전국 사찰 어린이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교콘텐츠인 찬불가 율동영상 두 편이 공개됐다.〈사진〉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은 12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교활동에 진력하고 있는 사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찬불가 율동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영상은 ‘108배’ 와 ‘길’ 두편으로 서울 화계사 어린이법회 법우들이 참여했다. 영상은 전국사찰 온 · 오프라인 법회 현장에서 포교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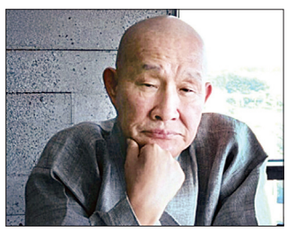
찬불가 율동영상 콘텐츠는 포교원에서 4년간 진행한 전법중심도량 영상콘텐츠 지원사업으로 올해 4번째 시리즈 제작을 완료했다. 좋은 벗 풍경소리가 음원 제공을,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가 율동 지도를 맡았다. 포교원은 지속적인 전법중심도량 영상콘텐츠 개발에 노력, 사찰 어린이법회 소속 어린이들과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조계종 포교원 유튜브 공식채널(www.youtube.com/@buddha108)과 어린이 포교 사이트 키즈붓다(www.kidsbuddha.org)에서 시청 가능하다.

임은호 기자

제5회 법계문학상 대상에 혜월 스님

구마라습 생애와 사상 그린 소설



제5회 법계문학상 대상에 서산 약선사 주지 혜월 스님〈사진〉의 소설 〈구마라습, 대장경 판각속으로 가다〉가 선정됐다. 대상 작품 〈구마라습, 대장경 판각속으로 가다〉는 구마라습의 탄생, 성장, 결혼, 업적 등 일대기를 흥미진진하게 엮은 전기소설이다.

남지심 법계문학상 심사위원장은 “혜월 스님의 〈구마라습, 대장경 판각속으로 가다〉는 불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구마라습의 생애를 그려내고 있다”며 “불자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구마라습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혜월 스님은 “작가로서 꿈을 15세에 품었는데 70세가 되어서야 그 원을 이뤘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불교문학의 발전을 발원하며 명작을 쓰고 싶다”고 밝혔다.

법계문학상 시상식은 12월 15일 청도 운문사에서 열렸으며, 이날 수상자에게 상금 2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신중일 기자

사찰림 공익 가치 증진할 공원위원회 출범

조계종, 12월 8일 위촉식 · 회의
전문성 갖춘 위촉직 등 총 19명

전국 국립공원 내 사찰림과 불교문화유산의 공익적 가치를 조명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원위원회’ 가 출범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2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국립공원 내 사찰림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공원위원회(공원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 내 사찰림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과제를 도출해 국립공원에 대한 불교문화유산의 기여도를 높이고자 만들어졌다.

공원위원회는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은 자연생태계 및 공원정책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조직됐다. 이날 진우 스님은 정연만 불교포럼 공동대표, 유기준 상지대 교수, 김상기 종책특보, 이영석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김봉석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국립공원 내 사찰인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설악산 국립공원),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오대산 국립공원),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속리산 국립공원),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팔공산 국립공원),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팔공산 국립공원),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가야산 국립공원),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내장산 국립공원),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지리산 국립공원), 갑사 주지 탄공 스님(계룡산 국립공원)이 포함됐다.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정덕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 재무부장 우하 스님, 문화부장 혜공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도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19명으로 구성된 공원위원회 위원들은 “지혜와 경험을 살려 사찰림과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립공원 전체 면적 중 사찰림이 8% 정도로 높지 않지만, 공원 내 핵심 지역에 사찰림이 존재한다. 전통사찰도 1700여 년의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있다”며 “공원법 개정에 따라 사찰림과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공원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 맡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은 현재 22개소로 사찰지는 공원 내 육상면적 7%를 점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야산 국립공원 내 사찰지는 38%, 내장산 국립공원 사찰지는 26%를 차지한다.

게다가 공원 내 불교문화재는 국립공원 전체 문화재의 72%로, 사찰림과 문화재 등 불교문화유산이 공원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찰림과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공익적 가치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돼 비합리적인 규제를 받아야 했다.

김내영 기자

진흥원 대원아카데미, ‘학점은행제’ 승인

학사학위 취득 교육기관 발돋움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가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한다.

진흥원은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가 대원아카데미가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승인을 받아 ‘학점은행제’ 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승인 받은 4개 과정은 △불교심리학 △인지심리학 △정신분석학 △정신건강과 참선명상이다.

대원아카데미는 학점은행제 승인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사학위 학점취득 교육기관이 된다.

불자 인재양성과 현대적인 불교 교육을 목표로 1973년 설립된 대원아카데미(구, 대원불교문화대학)는 불교교양대학으로 운영되다가 2021년부터 평생교육시설로 인가 받아, ‘명상’ 과 ‘심리상담’ 등 현대적으로 특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현대사회에 걸맞는 불교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불교아동미술잔치 시상…대상에 박서아

12월 13일, 시상식 개최…107명 수상 영광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이 개최한 제15회 불교아동미술큰잔치에서 구로 연꽃어린이집 박서아 원아가 대상을 수상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어린이집원장협의회는 12월 13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부처님에게 소원을 비는 모습을 그린 ‘즐거운 나의 일상’ 을 대상작으로 시상했다.〈사진〉 상장과 부상은 박서아 원아 대신 류미아 원장이 대리 수여했다.

15회 대회는 불교동화 〈원효대사와 해골물〉 〈스님의 세 가지 보물〉에 대한 상상화, 즐거운 일상, 환경보호를 주제로, 전국 재단 산하 어린이집에서 작품을 접수받아 진행됐다. 전국 28곳에서 825명의 원아가 대회에 동참했으며 11월 14일 재단 선정심의회를 거쳐 총 107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과 함께 맑음상 3명, 밝음상 4명, 향기로운상 2명, 단체상 1곳 등 총 10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임은호 기자